

어떤 구름

독서 활동지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아이의 마음과 세계를 담은 그림책!



종종 글·그림 | 값 15,000원 | 초등 전 학년



“

누군가는 그렇게 색을 다 빨아들여서 세상을 시커멓게 만든 구름을 타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구름의 욕심을 응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재능만 빛나 보이고, 자기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는 저도 어떤 구름처럼 한껏 욕심을 부려 보려고 해요. 부러운 마음을 동력으로 삼아 내 색깔을 찾아내기 위해 있는 힘껏 욕심내서 하고 싶은 것을 해 볼 거예요.

집필 우서희(서울자운초 교사, 《철학 버스》저자)

”

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어떤 구름》의 매력



저는 새파란 하늘 위로 동동 떠다니는 구름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새파랗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맑은 날에는 마음이 들떠서 잠시라도 틈을 내서 하늘을 바라보려고 해요. 고요한 나무 그늘 벤치에 앉아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간질이는 것을 느끼며 구름을 바라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하거든요. 구름처럼 가볍게 동동 떠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어떤 구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구름은 세상을 내려다보며 자기만 색이 없다면 심술이 났어요. 심술이 잔뜩 난 구름에게 바람이 찾아와 '색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바람은 장난꾸러기라 주의 사항은 자세히 알려 주지는 않았지요. 구름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계속 들이마실 때까지는 신이 나고 즐거웠어요. 그러나 구름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빨아들어요.

구름이 색을 빨아들이자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둡게 변했어요. 구름도 몸이 너무 무거워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허둥지둥 바람을 찾아가지만, 바람은 해결 방법을 알려 주지 않았어요.

구름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깔의 눈물을 흘려요. 눈물은 무지개비가 세상 곳곳에 가닿자 모든 색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색을 다 빨아들여서 세상을 시커멓게 만든 구름을 탓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구름의 욕심을 응원하고 싶어요. 만약 욕심을 있는 대로 부려서 구름이 이것저것 색을 다 들이켜 보지 않았다면, 무거워진 몸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동동 떠다니는 자신의 가벼운 흰색 몸을 지금처럼 사랑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능만 빛나 보이고, 자기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는 저도 어떤 구름처럼 한껏 욕심을 부려 보려고 해요. 부러운 마음을 동력으로 삼아 내 색깔을 찾아내기 위해 있는 힘껏 욕심내서 하고 싶은 것을 해 볼 거예요.



우서희(서울 자운초 교사)

학부모, 교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북클럽, 블로그 '철학하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철학 버스》가 있다.

인스타그램: @namuym | 블로그 <철학하는 교실> https://blog.naver.com/namuym_wooseohee

오늘, 내가 만난 구름

알록달록 건물들 사이로 뚝뚝 떠다니는 흰 구름이 보여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오늘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었나요? 어떤 구름을 보았나요? 만약 올려다본 적이 없다면, 바로 지금 하늘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 어떤 구름을 만났나요?

언제

예시) 체육 시간에 준비 체조를 하면서 목 스트레칭 하다가

어디서

예시) 운동장에서

예시) 하늘을 다 덮을 만큼 커다란 구름

어떤 모양

예시) 회색빛에 가까운 흰색

어떤 색



구름처럼 동동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은 숲, 바다, 미술관에서 다양한 색을 만나요.
내가 구름이 된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나요? 그곳에서는 어떤 색을 만날 수 있나요?
그곳에 왜 가 보고 싶은가요?



내가 구름이 된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나요?

- 장소: (예시) 빵집
- 만날 수 있는 색: (예시) 노릇 노릇 갈색
- 가고 싶은 이유: (예시) 내가 좋아하는 크로플을 마음껏 먹고 싶다.

내 구름은 무슨 색깔일까?

활동 2에서 만난 색깔로 내 구름을 색칠해 주세요. 가 보고 싶었던 곳에 가서 그 색으로 변신한 구름은 어떤 기분일까요? 표정도 함께 그려 주세요.

내 구름 보고서



내 구름의 이름: (예시) 빵빵이

내 구름의 기분: (예시) 빵을 너무 많이 먹다가 배탈이 나서 불편하다.

딱 알맞게 있으면 좋은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새로운 색을 갖게 된 어떤 구름은 처음엔 행복했지만, 모든 색을 들이마신 이후로는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힘들었어요. 세상도 색을 잃어버려 검은빛이 되었고요. 색처럼 딱 알맞게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을까요?

딱 알맞게 있으면 좋은 것

• 예시 초콜릿, 노랫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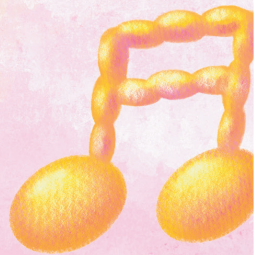
-
-
-
-
-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 예시 SNS 좋아요 수, 엄마 아빠의 사랑, "넌 멋져!" 라는 칭찬

-
-
-
-
-



부러워! 심술 나! 그럴 땐?

‘어떤 구름’처럼 다른 사람이 부러워서 너무 심술 날 때가 있었나요? 그럴 때는 무얼 하면 좋을까요? 장난꾸러기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힌트가 숨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멋진 점을 있는 힘껏 배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내가 가진 멋진 점을 떠올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멋진 점 중에서도 나도 갖고 싶었던
멋진 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왜 갖고 싶었나요?